

2018 년 6 월 1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은 내 지극히 거룩한 성심에 봉헌된 기간(성월)이 시작되는 날이다. 소수의 사람들만 이 사실을 인정하며 그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들만 여전히 이를 기념한다. 내 지극히 거룩한 성심의 힘은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과 하나다. 아버지께서는 명령을 내리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실행한다.”

“영혼들이 세상의 감실들 안에 있는 내 현존을 얼마나 소홀히 대하는지 모른다. 이 안에 하느님의 힘이 있다. 그들은 이 엄청난 은총에 너무나도 큰 무례함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힘은 나의 성체 성심에 대한 신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오늘, 영혼들이 나의 힘과 위엄을 구하는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게 하여라. 나는 내 지극히 거룩한 성심에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한다.”

2018 년 6 월 2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현재다.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향한 나의 눈길은 편재한다 (어디에나 있다). 나의 눈을 피해 숨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모든 선의 원천이다. 세상에 관한 나의 계획들은 인류가 나에게서 더 멀어지는 경우에만 바뀐다.”

“그렇기에 나는 낙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인내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들을 가지고 지상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뢰를 장려하기 위해서 온다. 나의 우려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믿어라. 나의 부성적인 사랑에 너희 마음이 열리게 하여라.”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이것들은 모두 사랑의 부족의 나쁜 열매다. 너희는 하와이 지역의 화산 폭발 같은 재해들을 자연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그것은 지금 나의 진노가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는 북한과의 성공적인 평화 회담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평화는 북한의 지도자의 목표가 아니다. 그는 그저 제재를 풀기에 충분한 정도만큼만 협력할 것이며, 그의 마음속에는 사악한 계획들이 존재한다. 그는 사랑의 적이다.”

“단지 사람이나 사건 들의 겉모습만 살피지 말고, 당면한 일들에 사탄의 지문이 새겨져 있는지를 살펴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4:1-6):

제 의로움을 지켜 주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곤경에서 저를 끌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 하느냐? 셀라 주님께서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서는 들어 주신다. 너희는 무서워

떨어라, 죄짓지 마라. 잠자리에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잠잠하여라. 셀라 의로운 희생 제물을 봉헌하며 주님을 신뢰하여라.

2018 년 6 월 3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시대의 아버지다. 요즘 시대는 그리스도적 신자가 살기에는 아슬아슬한 시대다. 인간의 선택들에 대한 나의 불쾌감을 보여주는 징표들이 너희 주변 도처에 산재한다. 인간은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쪽을 택한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은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목전에 닥친 나의 정의(심판)에 대해서 초조해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시대는 은총이 가득한 시대다. 내가 남은 신자들을 보호하고 그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 신자들은 그리스도교를 영속시킬 수 있는 희망이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난 기적들을 비웃고 무시한다. 오늘날 이곳 성지에서도, 기적들이 일어나고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 믿고 거룩한 사랑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다.”

“나는 나의 충실한 이들이 불신 가운데서도 거룩한 사랑을 장려하기를 기대한다. 거룩한 사랑은 세속주의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구명 보트와 같다. 일단 이 보트에 올라타기만 하면 너희는 너희 주변 도처에 산재한 위험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정부와 정계, 심지어 일부 종교계 내에도 존재하는 권한 남용이라는 상어들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진리는 영향을 줄 때 항상 도전을 받는다. ‘성공’의 목표는 돈과 통제불능의 권한, 그리고 인기에 있다. 이런 종류의 ‘성공’은 내 눈에 실패로 이어진다.”

“각 영혼은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게 증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수명이라는 시간을 할당 받았다. 인간의 모든 이차적인 목표는 말 그대로 이차적인 것에 머물러야만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2):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2018 년 6 월 4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주의 아버지다. 나의 계명들에 대한 꾸준한 사랑을 모든 민족의 마음속 깊이 심어줄 수 있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모른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모든 정부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확고할 것이다.

사업은 번창할 것이며, 가난한 이들은 희망에 차게 되고 그들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제공될 것이다. 또한 질투나 건전하지 못한 경쟁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기적인 사랑과 탐욕이 세상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잘못된 논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이 잘못된 논리는 오직 개개인의 탐욕스러운 욕구만 충족시키기 원한다. 이것은 더 큰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전쟁까지 초래하게 된다.”

“존중어린 사랑으로 나의 계명들을 수용하여라. 나의 계명들에 도전하거나 너희 필요에 맞추기 위해 재정의하려들지 마라. 용기를 가지고 너희 존재(삶)의 기초를 나의 계명들에 두어라. 만약 모든 이가 이렇게 한다면 너희는 전쟁과 자연 재해와 내부 갈등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신명 5:29):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져, 늘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될 것이다.

**2018 년 6 월 5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의 진리의 인장이 이 세대에 찍혀 있으며, 나의 성심의 비밀들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 위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예언되었던 일들이 실현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의 즐거움을 찾지 마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의탁하여라.”

“나는 너희가 순간 순간 내리는 모든 선택의 수호자다. 나는 나의 계명들을 통해 너희를 보살핀다. 이 계명들은 어둠의 시대에서 너희의 힘이다. 진리를 엄중히 지켜라. 진리는 나의 계명들 안에 압축되어 있다. 너희 마음을 이 진리로 교육시켜라.”

“나는 너희의 잘못된 자유의지 선택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너희의 실수의 결과는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말고, 기도를 통해 나에게 의지하여라.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의 성심으로 오는 길을 찾아라.”

+ 성경 구절 독서 (바룩 2:27-32):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온갖 선과 크신 자비로 저희를 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기록하라고 당신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은,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민족들 가운데에서 적은 수로 줄어들 것이다. 나는 이 백성이 완고하여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배의 땅에서 마음을 돌려,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마음과 들을 귀를 주고, 그들은 유배의 땅에서 나를 찬양하고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2018 년 6 월 6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
현 순간의 창조주이며, 모든 생명의 아버지다. 오늘 나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은 - 예수와 마리아의 성심을 둘러싸고
있는 빛은 바로 나의 빛이라는* 점을 명심하여라 -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전형이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 이
진리에 대해 오해하거나 이 진리에서 멀어지지 마라.”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을 모든 은총과 모든 자비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원천으로서 공경하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에 확신을 가져라. 너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성심을 매 순간 순간 신뢰하기가 쉬울 것이다. 너희 인간의
마음의 부족한 힘은 모두 우리의 하나 된 성심 안에 다 있다.”

“요즘 시대에 원수는 의심과 회의주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 이 세상에서 하나 된 성심은 거룩한 성체와 똑같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 믿는 이들은 반드시 용감한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나누어야 한다. 사랑의 사도들은 나의 성심의 기쁨이자 위로다.”

**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의 불꽃은 성령과 하나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티토 1:15):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신도 양심도 다 더러워졌습니다.

2018 년 6 월 7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시대의 하느님이며, 우주의 아버지다. 지상에 있는 나의 왕국은 남은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진리에 묶여
있는 영혼들이며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들이다. 나를 알고 또 나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는 아무도
거룩해질 수 없다. 나의 성심은 천국의 관문이다. 새 예루살렘은 남은 신자들에 의해 건설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품을 벗어나서는 거룩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나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가장 작은 풀잎에서 거대한 산에 이르기까지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나의 자녀들 하나하나를 사랑한다. 나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 각자를
나의 손 안에 품어안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기뻐하여라!”

2018 년 6 월 8 일

예수 성심 대축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내 거룩한 성심의 모든 것을 온 세상과 나누기 위해 왔다. 내 성심은 온 자비이자 은총이며 또한 사랑이다. 내 성심은 아무런 원한도 품지 않는다. 내 성심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오직 뉘우치는 이들에게만 입장을 허락한다. 다른 모든 이들은, 그들 자신이 그렇게 선택하기 때문에, 내게서 떨어져 있다.”

“내 성심은 권한 남용과 너무나도 많은 진리의 타협(훼손) 때문에 계속해서 비통하다.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인간의 마음의 큰 부도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지 않는다.”

“나는 모든 이의 마음이 내 성심과 하나가 되어 고동치기를 원한다. 내 성심 안에는 너희의 평화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내 베푸는 은혜가 있다. 너희는 내 성심 안에서 너희를 위한 신성한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식으로 내 성심을 너희가 잠시 세상으로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신다. 너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서로 섞여 한 마음으로 뛰게 하여라.”

2018 년 6 월 8 일

예수 성심 대축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평화 회담에 관해서 말하자면, 마음에서 양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저 겉치레만 요란할 것이다.”

2018 년 6 월 9 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와 함께 내 티 없는 성심의 축일을 기념한다. 내 성심은 온 인류에게 열려져 있지만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만 응답하고 있다. 내 성심은 온 인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다. 내 성심은 하나 된 성심의 첫 번째 심방이다. 바로 내 성심의 불꽃을 통해서 모든 영혼이 정화되고 높은 완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정녕 거룩한 사랑을 벗어나서는 아무도 완덕에 이를 수 없다.”

“나는 영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라는 칭호 아래 나를 부를 때 매우 기쁘다. 사탄은 이 칭호 앞에서 달아난다. 내 성심의 피신처를 구함으로써 거룩한 사랑에 충실하여라. 사탄은 너희의 파멸을 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그러므로, 그자는 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견디지 못한다.”

“남은 신자들은 내 직속 자녀들이다. 나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어좌 앞에서 그들의 안녕을 구한다. 나는 온전히 남은 신자들의 것이며 그들 또한 온전히 내 것이다. 나는 그들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온갖 시련에 직면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남은 신자들 하나하나를 다 도와줄 것이다. 사탄은 내 남은 신자들을 괴롭히지만 결코 하느님의 어머니를 압도하지는 못한다.”

+ 성경 구절 독서 (묵시 12:17):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2018 년 6 월 10 일

하나 되신 성심의 축일 - 오후 3 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계시며, 복되신 어머니께서도 성심을 드러내신 채 예수님 뒤에 계십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두 분의 성심이 한 데 합쳐져 하나 되신 성심의 상본 형상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가 너희에게 엄숙히 말하지만, 만약 이 상본이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게 된다면 세상은 이때까지 알지 못한 평화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여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하나 된 성심의 특사로서 세상에 파견하셨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계시는 진리의 승리와 새 예루살렘의 도래의 전조다. 이때에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게 되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비해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해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다. 나는 시간이나 날짜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나에 대한 너희 책임에 관해 경고를 주기 위해 오는 것이다.”

“나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날을 기쁨에 찬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끝나기 전에 수많은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나는 시간이나 날짜는 모른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일치되어 있어라. 이렇게 하면 너희 마음은 은총과 자비와 사랑에 열려있게 된다. 너희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 때 너희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남은 신자들을 위해 길을 닦고 계시며, 그들을 신중히 인도하고 계신다. 모든 이가 남은 신자들의 일부가 되도록 부름 받았지만 이것을 선택하는 이는 적다. 남은 신자들은 지리학적 지역에 상관 없이 우리의 하나 된 성심 안에서 서로 일치해야만 한다. 일치하라는 이 거룩한 부름은 거룩한 남은 신자들의 일원이 되라는 내 부름을 강화시킨다.”

“내 남은 신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심판을 받기 위해 내 앞에 섰다.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내 앞에 오게 될 것이다. 보수적인 관점이 영혼들의 마음을 얻어서 남은 신자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은 우리의 하나 된 성심 안에 있는 중요한 청원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해 나를 보내고 계신다.”

“오늘 나는 내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청원들을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의탁하도록 초대한다. 너희의 필요와 욕구와 심지어 두려움까지도 우리에게 다오.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 각 청원은 내 아버지의 지대한 뜻에 따라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부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모든 지향에 대해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라.”

“우리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2018년 6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시대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 된 성심의 계시가 지금 이 세대에 밝혀지게 될 것임을 영원으로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하나 된 성심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다. 나는 이 세대가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게 될 것을 이미 보았다. 나는 나의 계명들이 경시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나와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이들을 지지해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축일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이자 거룩한 성모의 생일인 8월 5일, 하나 된 성심의 별판에서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다시 한 번 나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별판에 있는 이들은 이 축복의 효과를 느끼게 될 것이다.”

2018년 6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다. 나는 모든 것을 전능한 힘으로 다스린다. 나는 온 인류가 참된 평화가 머무는 나의 성심 안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초대한다. 너희는 내가 없다면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걱정은 신뢰 부족의 나쁜 열매다. 모르는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인류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의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나는 오늘날의 사회의 위험으로부터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게 하기 원한다. 사람들은 흔히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사람들을 신뢰한다. 그들은 겉으로는 정직하게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저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한다.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좀 더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둠 속에 있는 숨은 의도들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서로를 신뢰하기를 바라지만 경솔하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신뢰하는 것, 또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아라.”

“나는 항상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 성경 구절 독서 (지혜 7:21-22):

그리하여 나는 감추어진 것도 드러난 것도 알게 되었으니 모든 것을 만든 장인인 지혜가 나를 가르친 덕분이다.

2018 년 6 월 13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현존은 인간의 잘못된 자유의지 선택들로 인해 오늘날의 세상에서 약화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인간이 나를 인식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여전히 편재한다. 인간의 모든 숨결은 나의 뜻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모든 성공과 모든 십자가 들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뜻을 보여주는 증거다.”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 할 때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들이 실패하도록 내버려둔다. 나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평화 회담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 나는 그래야만 하였다. 사탄 또한 너희 대통령(트럼프)의 훌륭한 노력들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선이 해냈다.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씨를 만났기에 사악한 결정을 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기도가 이 일을 이루어낸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나의 현존이 너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너희를 격려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나에게 응답하여라.”

2018 년 6 월 14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다. 매 현 순간은 악이 아니라 선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된다. 만약 너희가 현 순간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너희는 선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사탄은 교활한 방법으로 매 현 순간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선을 정복하고 악을 조장하기 위해 오감을 이용하는 등 사탄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것들이 선에 이바지하느냐 아니면 악을 도와주느냐?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라고 하는 말에 속아넘어가지 마라.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는 실수의 여지가 없다. 때때로 너희는 너희의 습관과 태도, 유대 관계를 바꾸도록 요구를 받는다. 너희가 나를 충분히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남은 신자들에게 지금 이 혼란의 시대에서 믿는 이들의 강한 군대를 만들기를 요청한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4:1-6):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2018년 6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주의 주님이다. 나의 창조는 영원하다.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나와 인류의 소통이라는 은총을 주기로 선택했다. 소동과 고모라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노아의 시대에도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 성지에서는 남은 신자들을 위해 모든 이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남은 신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또 그들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사랑하는 남은 신자들인 (내) 자녀들아, 믿음을 더하고 그 수가 더 증가하여라. 나의 계명들의 진리에 대해 말하고 또 이 계명들을 옹호하여라. 믿지 않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리에 기초를 두고 살아라. 독선이나 거짓 분별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게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는 영혼들이 내게 가까이 다가올 때 사탄이 그들 마음속으로 침입하는 통로가 되는 결점들이다. 너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위험에 처할 때 나의 전능한 힘에 의지하여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들은 사랑하는 남은 신자들인 (내) 자녀들, 바로 너희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4:1-3):

제 의로움을 지켜 주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곤경에서 저를 끌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 하느냐? 셀라 주님께서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서는 들어 주신다.

2018년 6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시대의 아버지다. 매 순간마다 나는 누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지 또는 누가 고집스럽게 불복종하는지 본다. 나는 그 수를 집계해서 정의의 심판의 저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간은 나의 진노가 분출될 날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작은 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큰 사랑을 가지고 행한 사소한 친절의 행위들이 인류를 큰 재앙에서부터 구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쳐진 수많은 작은 기도들은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예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 작은 기도들과 작은 희생들이 합쳐져 어마어마한 무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가장 작은 기도나 가장 사소한 희생조차 좌절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자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산되어 나오는 힘을 두려워한다. 사탄은 인간이 나의 진노의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되거나 나의 진노가 드러날 때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깨닫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의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이 진리들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이 이미 지났다.”

+ 성경 구절 독서 (창세 6:9, 11-13):

노아의 역사는 이렇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느님께서 내려다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 버리겠다.”

**2018 년 6 월 17 일
아버지의 날**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성심 안에서 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을 본다.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 나는 악을 되돌리기 위해 세상에 은총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해 주고 선을 선택하려는 인간의 갈망이 결여되어 있다. 인간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기지에만 의존하며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그 힘을 쓰려고 하는지 보지 못한다. 인류의 마음은 나에게 대한 사랑어린 신뢰를 저버렸다.”

“여느 아버지처럼 나는 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오류를 바로잡아주려 한다. 그러나 나는 나의 진노의 별을 통해 그렇게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의 계명들의 우산아래 인류를 다시금 이끌어 들이기 위해 내가 오고 있는 것이다.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 나의 성심에 이르는 열쇠이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의 다정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대부분의 경우 영혼들은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있음에도 시련 속에서 나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 모든 시련에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언제나 악을 선으로 바꾸는 데 있다.”

“그러니 부성을 기념하는 오늘, 너희의 초점을 변화에 맞추어라. 악을 인식하고 선을 선택하기를 원함으로써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여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므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너희의 거룩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려 애쓰지 말고 개인의 거룩함을 향한 너희의 노력으로 나를 기쁘게 해 주기 위해 노력하여라. 이것을 너희 삶의 목표로 삼아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53:1-2):

어리석은 자 마음속으로 ‘하느님은 없다.’ 말하네. 모두 타락하여 불의를 일삼고 착한 일 하는 이가 없구나. 하느님께서서는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살피신다, 그 누가 깨달음 있어 하느님을 찾는지 보시려고.

**2018 년 6 월 18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생명의 아버지이며 매 현 순간의 주님이다. 아무도 나의 허락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 모든 영혼에게는 진리로서

전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 진리란 바로 나의 계명들이다. 나는 모든 영혼에게 매 현 순간 진리에 대한 헌신을 새로이 할 것을 요청한다. 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너희의 헌신을 새로이 하여라.”

“나의 남은 신자들은 이 순종을 겉으로 보여주는 외적 표시가 되어야만 한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이것을 증거해야만 한다. 너희의 모든 욕구가 이 순종에 중심을 두게 하여라. 나의 남은 신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니 모든 세속적인 애착과 걱정을 내맡겨라. 너희 자신이 나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라. 너희가 이 친밀함을 갈망할 때 너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더 신뢰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비로소 사랑과 자비 그 자체인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2018 년 6 월 19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느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다. 나는 인류를 향한 나의 부름의 완성은 거룩한 사랑의 완덕이라는 점을 너희에게 최대한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왔다. 이 부름은 너희가 우리(나와 나의 아들, 거룩한 성모)와 맺는 완벽한 관계를 시사한다.”

“아무도 거룩한 사랑을 벗어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나와 내 아들과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희 구원의 열쇠임을 마음속 깊이 믿어라. 나는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방법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계명들은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며 거룩한 사랑은 나의 계명들을 구현한다. 이 점을 명심한다면 너희는 거룩한 사랑의 의미를 받아들이도록 고무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선택하도록 지금 이 순간들과 시간과 나날들을 추가로 얻었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쪽을 선택하여라.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너희 마음속에서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남은 신자들의 자녀가 되어라.”

**2018 년 6 월 20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 현 순간의 주님이다. 사탄이 너희에게서 현 순간을 빼앗아가도록 허락하지 마라. 논란은 혼란의 불을 부채질한다. 요즘

시대에 혼란은 마음속에서 시작하지만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면서 순식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기관들도 영향을 받아 진실을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다.”

“진리가 도전 받으면 지도부도 도전 받는다. 너희는 반드시 진리를 증진시키려는 목표를 마음속에 지녀야 하며 너희가 충실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그 목표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누구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지에 주의하여라. 모든 이가 정직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르는 것은 이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너희가 감추고 있는 모든 야심을 포기하여라. 너희 마음속에 이런 야심이나 질투가 있는지 찾기 위해 노력하여라. 나의 아들과 지극히 거룩한 성모가 너희를 겸손 안에서 이끌게 하여라. 겸손은 견고한 지도부의 기초다. 이런 지도부는 혼란스러운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

+ 성경 구절 독서 (히브 3:12-13):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 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2018 년 6 월 21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현재다. 나는 영적인 거룩함의 여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조언을 주러 왔다. 절대 너희의 거룩함의 깊이로 다른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은 영혼과 나 사이의 일이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또한 그들의 거룩함의 깊이를 판단하지 마라. 거듭 말하지만 그 일은 나와 각 영혼 사이의 문제다. 내가 언급한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영적 교만의 증상을 나타낸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거룩한 사랑의 좋은 모범이 되어라. 모든 상황마다 항상 너희의 희생을 생각하지 마라.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여라.”

“너희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하지 마라. 이것은 사탄의 계책이다.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양심을 성찰하되 너희 자신을 꾸짖는 것은 피하여라.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5:13-15):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2018 년 6 월 22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시대의 아버지다. 너희는 남은 신자들인 나의 자녀들로서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서로에 대해 비판하지 말고 거룩한 사랑 안에서 평화 중재자가 되어라. 너희의 다른 점들을 거룩한 사랑으로 해결하여라. 너희 자신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라. 지나치게 비판함으로써 문제를 만들지 마라.”

“거룩한 사랑에 근거해 의견을 형성하여라. 너희의 의견은 절대 변경될 수 없다 생각하지 마라. 다른 이들의 의견에서 일리 있는 점을 보려고 애써라. (여러가지 상황들을) 참작해서 보려고 노력하여라.”

“내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의 남은 신자들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신앙의 전통을 지키려는 목적 아래 일치하여라. 너희가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다투는 데 시간을 낭비한다면 중요한 일에서 서로 일치단결하지 못한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4):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2018 년 6 월 23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시대의 아버지다. 나는 세상의 마음이 내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 왔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나의 무한한 자비를 통해 변호하는 이다. 그러므로, 오 지상의 인간들아,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경의를 표하여라. 나를 떠나서 너희 자신의 노력을 신뢰하지 마라. 너희 기도를 강화시키는 것은 바로 희생이라는 점을 명심하여라. 너희가 나에게 희생을 봉헌하면 나는 너희 노력을 보고 너희 기도를 들어주려고 마음이 움직인다. 희생은 나의 성심 안으로 너희를 더 깊이 데려온다.”

“나는 이제 남은 신자들을 형성하고 있다. 수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단계에서 그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남은 신자들은 그 자체로 한 민족이며, 모든 이에게 인식되지는 않겠지만 그 목적 안에서 서로 일치하는 민족이다. 그 목적이란 옛부터 실천되어 오던 신앙의 전통을 회복하고 유지시키는 데 있다. 요즘 시대에는 온갖 적이 신앙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신앙을 재창조하고 나의 계명들을 재해석하려 하는 이기적인 욕망이다. 나는 이런 노력들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남은 신자들은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나의 격려를 받고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여라. 남은 신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의 신앙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만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19-22):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모퉁잇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2018 년 6 월 24 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의 지배권에 마음을 내맡기는 데에는 겸손과 사랑의 행위가 요구된다. 영혼은 반드시 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영혼이 현 순간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자신에 대한 나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뜻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가 허락하여 영혼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나의 이유들은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영혼들이) 영원에 이를 때까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세상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다. 이것은 오직 거룩한 사랑의 완덕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십자가는 늘 모든 삶의 한 부분이며 영혼을 무질서한 이기적인 사랑으로부터 정화시킨다. 사랑은 신뢰의 열쇠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면 너희는 나를 더 신뢰할 것이다. 나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영혼을 준비시키고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1 코린 2:9):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2018 년 6 월 25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의 아버지다. 나는 다시 한 번 나의 남은 신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세상의 눈에는 감춰져 있지만 나의 성심 안에서는 두드러지게 존재한다. 너희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자신의 종교를 선포하는 세상에서 충실하고 용감해야만 한다. 이 이기적인 사랑은 어떤 식으로든 내가 아니라 영혼 스스로를 만족케 하는 자기 충족감의 형태를 취한다.”

“종교나 심지어 계명들이 개개인에게 맞추기 위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라. 계명들과 종교는 천국에 이르는 체계적인 길로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꾸준히 이것들에 충실하여라. 이 순종은 너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새로운’ 영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진리는 너희를 천국을 향해 이끈다. 거짓은 현실의 타협이며 천국으로 가는 길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나의 계명들을 피해 가면서도 여전히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요즘 시대에는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에 반(反)하는 교만한 자립(自立)의 영이 존재한다. 너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이런 동기가 있는지 너희 마음을 살펴보아라.”

+ 성경 구절 독서 (신명 5:1):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똑똑히 일러 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들어라! 너희는 그것들을 배우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2018 년 6 월 26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현재다. 나는 나의 남은 신자들에게 현 순간의 진가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하라고 청하러 왔다. 너희의 구원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 순간 안에 있다. 신뢰는 지금 이 순간(현재)을 사는 비결이다. 영혼은 그의 과거를 깨끗이 씻어주는 나의 자비를 신뢰해야만 한다. 그리고 미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은총을 신뢰해야만 한다. 또한 그는 나의 남은 신자들의 일원으로서 각각의 현 순간의 은총에 의지해야만 한다.”

“받아들이미 곧 내말김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너희의 내말김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영감, 그리고 신뢰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워야 한다. 절대 이 점에 관해 안일하게 있어도 관찮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너희 주변 활동을 현명하게 선택함으로써 현 순간을 지켜라.”

“나는 남은 신자들이 현재를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모든 은총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매 현 순간의 창조주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19:15):

주님,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시여 당신 앞에 드리는 제 입의 말씀과 제 마음의 생각이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2018 년 6 월 27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천상의 아버지다. 나는 지혜와 진리의 길을 선언하기 위해 왔다. 나의 메신저야 (모린 스위니-카일), 새로 부화된 새끼 새들이 자라는 것을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너는 그 새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영적인 삶에서 영혼의 진전은 작은 새들의 신체적 성장만큼 꾸준한 진행되지는 않는다.”

“더 깊은 영성에 이르는 데 도움을 주거나 혹은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영혼은 어느 날에는 성령으로 활활 타오르다가도 다음 날에는 영적인 사막의 무미건조함 안에 있게 될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덕의 사다리를 빠르게 오르다가도 덕을 잘 실천하지 못한 나머지 낙담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대해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공격을 받아 계속해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다. 새끼 새들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다른 새들이나 동물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처럼 영혼 또한 취미, 특정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까지도 포함된 이런 영적인 위험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영적인 위험들을 알아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혜로운 이가 되어라.”

**2018년 6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주님, 우주의 주님이다. 모든 별과 모든 행성 들을 창조한 이가 바로 나다. 그날그날의 날씨는 계절이나 기후 전선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나의 신성한 뜻의 일부다. 과거 사람들은 의식이나 특정 춤을 통해 날씨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늘을 관리하는 나의 권능을 좀 더 많이 의식하고 있다. 어찌됐든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인간이 내가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때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지켜본다. 인간의 이런 태도 때문에 마음속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도자들이 나의 베푸는 은혜에 의지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너희에 관한 모든 것, 너희의 안녕에 관한 모든 것이 나의 손 안에 있다. 나는 매 현 순간의 주님이다. 그러므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여라.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여라. 이것은 나에게 대한 너희의 사랑과 존중을 보여준다. 나는 절대 너희를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너희에게 힘이 되어주며 너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 나는 바로 진리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33:4-22):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분의 행적은 모두 진실하다. 그분은 정의와 공정을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자애가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

그분께서는 제방으로 모으듯 바닷물을 모으시고 대양을 곳집에다 넣으신다. 온 땅이 주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사는 이들이 모두 그분을 두려워하리니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생겨났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민족들의 결의를 꺾으시고 백성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신다. 주님의 결의는 영원히, 그분 마음의 계획들은 대대로 이어진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신다. 당신 머무시는 곳에서 굽어보신다,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을. 그들의 마음을 다 빛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병력이 많다고 임금이 승리하지 못하며 근력이 세다고 용사가 제 몸을 살리지 못하네. 기마로 승리한다 함은 환상이며 그 힘이 세다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이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신뢰한다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저희 위에 당신의 자애를 베푸소서.

2018 년 6 월 29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현재다. 내 안에는 시작이나 끝이 없다.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현실에 대해서 안일한 이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말하고 있다. 매 현 순간은 선과 악의 선택을 담고 있다. 영혼은 친구들과 취미, 삶의 일상적인 일들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나의 신성한 뜻이 너희에게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특히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포함된 경우에 그렇다. 너희는 내가 천국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못한다. 사람들은 매 현 순간 전 세계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면에서, 사악한 선택들을 하고 있다. 묵묵히 역경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행동) 세상으로 하여금 확실한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나는 파멸에 임박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나와 협력하도록 너희를 초대한다. 매 현 순간의 십자가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성한 희생적 삶(산제물)을 사는 것을 받아들여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너희의 받아들임 안에 너희의 내맡김이 있다. 너희의 내맡김은 악에 대항하는 나의 무기고에 있는 강력한 무기다.”

+ 성경 구절 독서 (잠언 19:21):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 뿐이다.

2018 년 6 월 30 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낮과 밤의 아버지다. 나는 영혼들의 참된 본향인 천국 즉, 낙원으로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 시간을 창조한다. 각 영혼은 천국에 목표를 두어야 하며, 마음속 핵심 가치들의 온전함을 조금씩 갉아먹는 죄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 노력을 너희의 천상 아버지인 나에게 내맡겨라. 나는 모든 기도를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해 사용한다. 이것이 지속적인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이다. 파티마 발현 이후 세상에 주어진 일시적인 평화는 거룩한 성모의 요청에 대한 인류의 협력 부족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했다. 보수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제 서로 일치단결해야만 한다. 이 영구적인 평화는 오직 사람들이 진리에 마음을 열고 사탄의 권모술수를 피할 때 지상에 자리잡을 수 있다.”

“세상의 마음의 회심이 영구적인 평화다.”